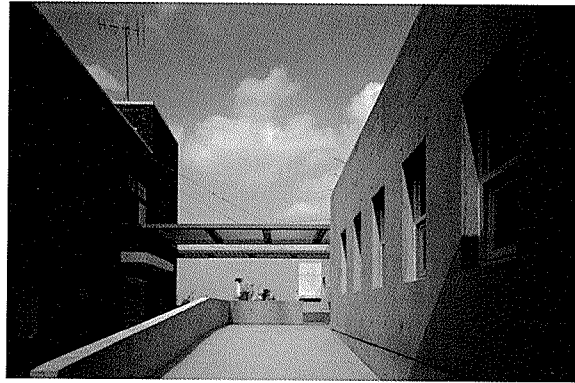


공간의 엔트로피가 높은 집

Where the Spatial Entropy is High

강 혁 / 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by Kang Hyuk



1. 학교라는 배움의 집에 대하여

우리는 배움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이 된다. 우리는 배워서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배워서 더불어 살 줄 알게 되며, 배워서 무엇을 만들 수도 있게 된다. 세상을 볼 수 있는 힘도 배움을 통해 얻어진다. 배움은 가르침과 연결되니, 교육은 곧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교육은 아주 어려서 부터 이루어진다.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가 학교라면 가장 중요하고 큰 학교는 가정이고 사회이며, 더 크게 보아서 문화이다. 그것들은 오늘의 나를 있게한 존재의 집이다. 그러나 제도화된 학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거기서 우리는 근대 사회의 시민으로 키워진다. 학교라 불리는 특수한 장소와 공간에서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품성과 쓸모를 지닌 인간으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학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유치원일 수 밖에 없다. "나는 소중하고 기본적인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베스트셀러의 제목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 가장 많은 인간 형성의 경험을 얻는 배움이 집이 바로 유치원이다. 거기서 우리는 읽고 쓰는 일 이전의 몸가짐과 삶의 규율을 습득하며 자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교육기관이 국민학교일 것이며, 다음이 중고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먹고살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대학을 위해 모든 배움의 과정이 존재하고 종속되는 한국의 교육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잘못된 한국의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숙한 자아를 일구는 '장소'로서 학교가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기능적인 도구를 주조해내는 '공장'으로서 학교를 만들었다. 거기에 공헌하고 스스로 일조한 것이 건축이다. 근대 산업사회의 규율과 훈육을 위한 공간으로서 한국의 학교 건축 같은 좋은 예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국민학교, 혹은 초등학교 건축에 대해 우리 모두 선연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커다란 운동장과 그 뒤에서 있는 큰 건물 한채, 거기 무서웠던 변소와 교문 곁의 미류나무, 그리고 그 밑의 철봉들. 실상 초등학교의 공간 배치의 모범(model)은 일제의 막사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거론한 훈육을 위한 판옵티콘적 공간-기계이

다. 일제의 병영을 번역한 공간 형식을 해방 이후 50년 동안 학교 건축으로 답습해온 우리의 무지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명칭변경함으로써 극일했다고 믿는 순진함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며 무의식 중에 그곳을 감옥으로 느꼈던 필자의 아득한 기억이 단순히 열등생의 그것만은 아니었음을 자식을 다시 그곳에 보내는 요즈음 깨닫고 있다. 우리 건축계에서 학교 건축, 특히 초중등학교 건축은 버려진 황무지나 다름없는 미답의 분야이다. 이제까지의 반복해온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서 학교라는 배움의 집을 짓는 일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무의식 간에 반복하면서 굳어져버린 과거의 껍대기를 철저히 망각하고, 나무 아래 한 스승과 학생 간의 만남과 대화에서 학교의 시작을 본 루이스 칸과 같은 근본주의자적 자세로 학교 건축에 임하는 자세가 바야흐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이다.

2. 유치원 건축에 대하여

유아원 혹은 유치원이 필수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한 지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는다. 필자 세대에게 유치원은 잘 사는 집 애들이나 가는 특수 교육기관이었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어느 틈에 모든 아동들이 거쳐가야 할 관문이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유치원이라는 배움의 제도와 그것을 담는 건축은 여전히 낯설다. 아니면 어설프다.

그것은 그 교육 제도가 우리의 삶 속에 솟속들이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80년대 이후 감각적레 유치원 건축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이 땅의 건축가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유치원 건축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 아니 어쩌면 유치원이라는 놀면서 배우는 집에 어떠한 고정된 형식도 필요없을 지 모른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가 유치원을 지을만큼 지었는데도 이 땅의 현실에 적실한 바람직한 유치원의 상에 대한 뚜렷한 전범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막사를 방불하는 초등학교 건축 만큼이나 문제적인 상황이다. 유치원 설계를 위해서 그동안 자주 인용되곤 하던 성장기 아동의 특수한 신체

조건과 심리 상태, 그리고 그에 필요한 환경계획적 대응 등이 되뇌일 필요는 없다.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저절로 좋은 유치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우리 현실 상황에 적합한 유치원 건축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그것을 공간으로 풀어내는 능력이다.

그러한 근본이 결핍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유치원 건축을 원색으로 도배한 몽당연필이나 레고 모양의 장난감 형태로 만들어서 앨리스적인 원더랜드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환상과 경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디즈니식 발상도 필요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유아원이나 유치원은 아동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 공동 생활을 배우고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를 자각하는 생활의 장소이기에 그곳은 일상 생활의 터로서 집의 연장이지 현실 망각의 공간은 아니다. 공간을 통한 삶의 즐거움과 호기심 유발은 보다 고차원적인 공간-장치를 통해서 유발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시각적인 자극으로 아동을 유혹하는 유치원 건축은 그 안에 교육을 상업화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시중에는 유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한 버려질 종류의 사설 학교들이 난립하고 있다. 아무나 아동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가 사업성과 결합한 터일 것이다. 구미에서는 이 시기의 교육의 중요성과 어려움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 교육과 경험을 가진 이들만이 교육을 담당한다고 들었다. 우리는 유치원 건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릴수록 자신이 거하는 공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유치원 건축이 가장 까다롭고 진지한 프로젝트여야 할 소이가 여기에 있다.

3. 행은 어린이의 집에 대하여

김인철이 설계하여 지은 행은 어린이의 집은 산비탈 자락 달동네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집에 대한 주변 설명과 설계 의도는 건축가가 이미 피력한 바가 있다. 다만 이 집이 생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맞벌이를 해야하는 저소득층 부부가 애들을 맡겨놓는 탁아소겸 유치원으로 구청에서 건설비를 댄 공공 시설이며, 과거에 그 자리에 있던 낡은 시설의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지은 집이라는 점은 지적하고자 한다. 산동네에 자리잡고 있지만 놀이터와 마당이 있고 단층이라는 점에서 아파트촌이나 중산층 동네에 흔한 상가식의 유치원 보다 훨씬 나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이 집은 여느 유치원과는 사뭇 다르다. 평면의 구성이 그러하고, 형태가 그러하고, 재료가 그러하다.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이 집에 대한 평가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극단적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는, 경직되고 기계적으로 느껴지는 평면 구성과 단순하기 짝이 없는 상자 꼭 형태, 노출 콘크리트라는 무기적 재료의 사용을 문제삼아 어린이들의 심성과 행태를 무시한 채 건축가가 자기의 건축적 취향과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억압적인 건축이라는 시

각이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기능적인 의도 하에 일사불란하게 짜여진 것 처럼 보이는 막사 식의 공간 조합이나 아동들을 위한 배려어린 장치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일견 타당하게 비칠 수 있다. 필자도 처음 건물에 들어서면서 잠시 그런 오해를 했다. 그러나 찬찬히 건물을 둘러보고 내부의 공간들이 지어내는 분위기와 아동들의 공간 이용 행태를 관찰하고는 전혀 반대의 시각에서 이 건물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동일한 공간의 유형학이 그 스케일과 조작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우선 이 건물은 개별 공간들이 고유의 성격을 부여받아 사용자의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전혀 담고있지 않다. 다양한 행위를 가능하게 할 중성적인 공간이 단순 명료한 평면 형식 내에 담겨져 있을 뿐이다. 건물 외부 가로에 수직하게 뻗은 중앙 복도에 크기를 달리 하는 방들이 날개(wing)되어 붙어있는 평범한 배치는 특별나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층 건물이라는 호조건 때문에 마당을 두고 각 방이 한옥의 마루나 사랑 같은 공간 그러나 그 보다는 공간 밀도가 높은 을 만들고 있다. 마당와 방 사이에는 공간의 역전이 일어나 마당이가 방이 되고 방이 마당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마당은 방 못지않게 비중있는 공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공간(served space)과 서비스 공간(servant space) 사이의 관계 역시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으로 무리가 없다. 이 건물 내부에는 아동들을 위해 특별히 설치해 놓은 장치나 내밀한 공간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 대신 사용자 위해 건물 전체의 스케일을 낮춰 놓았기에 친밀하고 이쁜 공간감을 이루어냈다. 처음부터 유치원 용도로 설계되었기에 치수와 척도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고 또 건물 규모가 조그마하기에 그렇기도 하다. 미리 지은 근생시설에 내부를 꾸며 조성한 여느 유치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는 여기에서 오고 있다. 작가의 전작 중 목격되는 스케일의 축소가 다소 작위적이라 느껴지는 데 비해 여기서는 자연스러움을 확보하고 있다. 이 집은 필자가 여러 해 전에 방문한 바 있는 안도 다다오 설계의 일본 관서 지역 소재의 어린이의 집과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동일한 기능에 같은 노출 콘크리트 조이지만 안도의 것은 스케일의 장대와 공간 연출에 대한 의욕이 내부 사용자의 활동과 괴리되어 있음을 느꼈다. 공간의 분위기도 안온하기보다는 긴장되고 차가웠다. 행은 어린이의 집의 경우 노출 콘크리트 조가 야기시킬 수 있는 썰렁한 공간을 만들 위험은 최소한 피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필자가 행은 어린이 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한가지는 이 건물의 공간 구성이 아동들로 하여금 상당히 자유로운 행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핏 보기와는 달리 이 건물의 평면은 아동들이 다양한 통로와 출구, 계단과 경사로, 마당 등을 통하여 여러 장소와 방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각각의 공간은 단절되어 독립되어 있기보다 연결되고 이어

져 있다. 아동들이 자기 식 대로 놓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집인 셈이다. 외관상의 재미 속에 통제의 의도를 담고 다른 유치원과는 반대이다. 필자는 공간 내에서 활동의 자유도가 크며 변화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공간의 엔트로피가 높다고 표현하는 데, 이 집의 경우가 그러하다. 엔트로피가 지나치게 크면 혼란도 커지며 궁극적으로 미로 같은 혼돈의 공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건물은 실 배치나 동선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아동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억압하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의 엔트로피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건물은 여전히 경직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내부공간 그 자체가 변화 있고 풍요롭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자의적이고 극적인 공간의 연출을 억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 매일 사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단조로우 수도 있는 공간이다. 자연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콘크리트 벽체의 건조함을 완화시켜도 좋지않았을까? 특히 마당을 인공적인 공간으로 놔두기보다 나무 같은 생명체의 도입으로 계절과 자연을 감지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아동들에게 더 좋으

1. A Place of Learning; The School

We become a true human being only after our learning. Our speaking and thinking only comes after our learning, and it is then when we realize how to live together, or to create things. Learning provides us how to look at the world. Learning is possible when someone else is teaching, therefore education gives birth to true human beings.

The place for education is the school, and in its broadest sense includes home, society, and ultimately the culture. These are the house of existence that has allowed my own one. But we must never fail to value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t is through there where we finally become a citizen of contemporary society. In a specified place and space, usually known as school, we grow up to be a man of good character, welcome to the society. The first, therefore most important, educational institute one comes across is the kindergarten. Some best-seller bears the title "I've learned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things in kindergarten", but it is needless to mention it here; Kindergarten simply is where we enter for the first time of our lives, and experience life that develops you into an independent human being. Before reading and writing, we learn to accept the orders of living in kindergarten. Next will come elementary school, and then the middle school followed by the high school. In this respect, our own tendency to submit every other educations to the university, which is essentially an academy teaching people how to earn a living, is thoroughly mistaken. The falsely oriented educational system of Korea has made the school, not a 'place' for developing the individual's possibilities and maturing their personalities, but a 'factory' that produces functional human resources. And the architecture has only contributed to this degradation. To look for an exemplary case of school architecture in the age of modern industrial

리라 생각해본다. 무분별한 곡선의 도입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호가 그리는 부드러움과 운동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저예산을 가지고 이 모두를 성취하기는 무리이다. 하지만 아직 손보지 않은 외부 공간들에도 조경과 디자인적 배려가 가미해야만 이 집이 살라나리라는 점은 특별히 지적하고 싶다.

4. 맺는말

김인철의 행운 어린이 집은 여러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습화된 여타 유치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지닌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좀더 섬세한 부분까지 손길이 미쳤으면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의 가능한 한가지 해법을 제시한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더구나 달동네의 아동들에게 편하면서도 색다른 공간 체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집은 방문하는 이에게도 즐거움을 준다. 이 집은 아직 완성되어 않았다. 건축가는 남아있는 기존 건물을 헐고 별동을 새로이 덧붙일 것을 꿈꾸며 현재의 건물을 설계했다. 전체의 건물이 완성될 때를 기대하며 이 집이 동네의 진정한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정착되길 바란다.

society doesn't seem too hopeful.

We all have a memory of the elementary school - A long, linear building standing behind a big playground, perhaps a restroom that you were afraid to go to, a tree next to the main gate, and the horizontal bars under them... This so-called model of elementary schools was directly borrowed from the Japanese, which can be compared to the Panopticon space-machine in Michel Foucault's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he casual application of Japanese military facilities to our elementary school could never be overcome by simply changing its Japanese-based title. As I look at my son who goes to the same kind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at I had attended, I sense that my unconscious impression of them as a prison was not totally a feeling of my own.

In Korea, school architecture, especially elementary school architecture is a neglected field. To break away from this vicious repetition, we must look into the basic idea of school as a place to learn. It is helpful to think of Louis I. Kahn's essentialist approach, which viewed the beginning of school in the meeting of a student and a teacher under a tree.

2. On Kindergarten Architecture

It isn't long since the essential role of kindergartens and nurseries begun to be fully acknowledged. In my childhood, they were strictly limited to wellborn, wealthy kids; now it is a necessary course in education. But the system and the architecture that contains this early education is still very remote, or rather awkward. It's because the education system has not yet thoroughly developed into the lives of the people, or because the urgent request for kindergartens in the 80s still has unprepared architects in confusion.

Contrary to the elementary school, we do not have a memory of kindergartens. We did not even have a formal set of cognition on the kindergarten as a place of playing and learning. But what is disappointing is that, now when we have a large number of kindergartens nationwide, we still do not share an ideal image of this institute. This is even more problematic than the case of the elementary schools.

What were often mentioned in the design of kindergartens were the architect's standard data on the physical dimension of its young users, their psychological patterns, and its requested condition of the environment. These, however necessary they are, do not itself derive a good kindergarten. What we mostly need is the vision and philosophy of a kindergarten that our age needs, and the ability to build it into space.

And this is what we lack - and the kindergartens are becoming more like Alice's Wonderland. These sort of "Disney" ideas will surely present fantasies and dreams, but the kindergarten is far too important to be left in illusionary space. It is where children, for the first time, leave home and become socially involved, acknowledge himself/herself as a social member. Luring children by visual extravaganza is a symptom of education's excess commercialism. There actually exists various kinds of institutes for pre-kindergarten children, a joint result of commercialism with a naive belief that anyone can be qualified for teaching. In the West, where the importance and difficulty of teaching this early age is recognized, only the highly-skilled in this profession are qualified. This exemplifies how relatively easy we consider the education of kindergartens, and its architecture.

3. On Hang-Ung Children's House

The Hang-Ung Children's House, a work of architect Kim InCheurl, is located at a ghetto area on a hillside. The introduction on this project has already been addressed by the architect, but I'd like to note two points: that it is a kindergarten and nursery, built by the regional administration office, where low-income couples, both inevitably contributing to the income, can take their children, and that it replaced an old house that served the same function. Although it is at a ghetto area, a single story building with a playground and a lawn is not a bad condition, even better than the ones in high rise apartment areas. Its composition of plan, form, and material also shows much difference to the usual kindergartens, and this can be valued either positive or negative,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First, its simple form of a box containing a rigid and mechanic plan, materialized in cold exposed concrete could be criticized as an oppressive architecture, where the architect, with no concern for its users, maintained his much-too-personal vision. Its first impression actually is not so different from the "boxes" that constitute most of our education facilities.

This was also a view that I shared, at least in the first glance. But experiencing the Children's House, feeling the atmosphere the interior space creates and watching the children's activities in them, I could find a totally opposite virtue. The simple truth, that the same topological dimension can be so different according to its scale and composition, could once again be proved.

The space of this architecture does not intend to induce the user's specific activities by the specifically classified volumes. The neutral plan, where anything is possible, dominates the overall design. Various sizes of rooms attached to the long, horizontal center corridor is not so unusual in its type, but its single story allows each of the spaces to, although more dense, present an atmosphere of Maru or Sarang of traditional architecture. In between the garden and the room, a spatial subversion occurs, where the garden becomes the room and the room becomes the garden, which proves that the garden is as meaningful in the design as the rooms. The relation between the served and the servant spaces seems to be functionally fit.

There are no special gadgets or specialized spaces to amuse its little users, but the diminished overall scale forms a friendly mood for them. This could be possible since it was intended as a kindergarten in the first place, and the building area was relatively small - there are other usual cases where the kindergarten is inserted into a already-finished neighborhood facility. The architect's past tendency to reduce the architecture's scale finds its most reasonable justification in this project. This scale, used with exposed concrete, creates an effect quite the contrary to Ando Tadao's architecture. Ando's buildings, with large scale and unusually strong form-will, where the atmosphere is rather tense and cold than comforting, disconnected itself from the heart of its users, whereas the Hang-Ung Children's House already overcomes the use of the material. Another point I'd like to value in this project is that its spatial composition allows so much freedom to the children. Its plan, unlike the first impression one might get, connects the rooms to the path, the exit, stairs, ramp, and the garden. The spaces are connected so as to let the children play around with the utmost freedom. This is the opposite from the static plans of visually amusing kindergartens. I enjoy the expression of 'high entropy' in a space where activities and changes are open, and this project certainly deserves this praise. Enabling the children's creativity within a clear distribution of spaces and circulation is where its most important achievement can be found. But in respect of entropy, its interior has shortcomings when we consider its diversity. Overcoming the lure of creating overly-eager spatial effects is welcome, but it could be monotonous to its everyday users. Some natural materials could have helped to ease the silence of the exposed concrete, and the garden could also be less artificial, allowing the children to feel the changing seasons. Solving every problem with so less money is always a limit, but some care for its outdoor spaces could surely enhance the appreciation of this house.

4. Conclusion

Architect Kim InCheurl succeeds in creating an alternative kindergarten, in a relatively tight condition. Some subtle touches are missed but since it presents another method in school architecture, the overall achievement could be positively valued. Its importance is doubled as it is constructed in a ghetto area, presenting joy to its children. This building is not yet finished - it awaits a new addition in the near future. I look forward to its completion with hopes that it will become a true gift to the community.